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의 김종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0년대 후반에

가장 강렬했던

전후문학 작가 손창섭

그리고 그의 단편 ‘비 오는 날’ 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손창섭은 1922년 평안남도

평양 출생입니다.

고학으로 일본 니혼대학에

들어갔지만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 서른이 되던 해에

‘비 오는 날’ 이라는 이 단편이

소설가 김동리의 추천으로

‘문예’ 라는 문예지에 발표되면서

작가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생활적’ ‘미해결의 장’ ,

‘인간동물원초’ ‘혈서’ 같은

단편을 잇달아 발표했는데

여러분 여기 제목들을 한번 보시죠.

‘생활적’ ‘미해결의 장’

‘인간동물원초’ ‘혈서’

그리고 60년대에 발표한

장편 ‘신의 희작’

아 ‘신의 희작’ 은 장편이 아니고

단편이군요. 자전적 작품이고

‘육체추’ 이런 작품들

장편 중에는 ‘낙서족’ 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만 보아도 얼마나

이 작가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또는 인간의 근본적인 심성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비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손창섭은 50년대에 걸쳐서

가장 전후파적인, 가장

전후 문학적인 경향을

잘 드러낸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창섭의 작품은 왜곡되고

기형적인 인간상을 내세워서

그 시대상을, 불안정하고
비정한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했던
이 6·25동란

이것은 우리의 정신사
또는 문학적인 상상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야말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고

다시는 있어선 안 될
전쟁의 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문학으로 갔을 때 어떨까요?

이것은 좀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

중국 원나라 때에 시인이 쓴
시 한 구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 불행 시인 행이라”
국가는 불행한데 시인은 행복하다.

무슨 말일까요?

국가에 불행한 일이 있을 때

문학에는 그것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쓰게 된다.

이한테면 그것은
문학작품의 소재에 있어서

하나의 보고, 보물창고라는 뜻이죠.

6·25동란이 우리 민족사에 미친

참으로 부정적인
그리고 비극적인

영향에 대해선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우리 문학의 많은 분량이

이 전쟁의 문제, 한국 전쟁,
6·25동란의 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말은 매우 적합한 사례가 됩니다.

손창섭의 경우
전쟁의 참상을 겪었기 때문에

전후문학에 있어서 것처럼 격렬한
문학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창작된
여러 작가들의 작품은

대체로 재난에 의한,
그 파괴로 인한 피해를 묘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결여된

인간적인 따사로움, 휴머니티,
평화주의를 고양하려고 하는

그런 양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창섭 소설의 경우에는
첫 번째 성격,

피해를 묘사하는 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훼손,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

이런 주인공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불구성은

인간 자체의 결함이나
피해 의식의 반영이 아니라

전후의 현실적인 상황,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전쟁으로 파손된 삶의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핵심으로서

불구적인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인간상은

1950년대의 불안한 사회상황을
잘 드러냈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병자, 불구자, 의욕 상실자 같은

이런 다양한 아픔의 모습.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니나’ 라는 장편소설이 있죠.

톨스토이는 슬라브 민족주의,
기독교 박애주의,

휴머니즘의 인본주의를
러시아의 상황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낸 작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 카레니나’ 란 작품의
서두에 이런 대목이 있죠.

“행복한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모습으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제각각의 모습으로 불행하다.”

행복할 조건이란 것은

대체로 정해져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불행한 사람들은

정말 여러 모습으로 불행하고

손창섭은 이 불행의 모습을

말하자면 소설로 포착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작품세계도 그렇지만

손창섭은 개인적인 이력으로도

독특한 작가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손창섭은 극도의 혼란과 절망으로

점철된 그 시대적 특성을 드러내면서

훼손된 삶의 모습과 그 절망, 방향을

가장 명백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는데

그 자신이 곧 그와 같은 궁핍한,

옹색한 삶을 살았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체험들이
소설로 드러났다는 얘기이고

자기 모델의 세계관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손창섭 소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950년대 전쟁 이후의
불안정하고 불안한 사회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휴일’ ‘사련기’ ‘비오는 날’ 같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어둡고
또 암담한 그와 같은 작품의 세계

‘생활적 혈서’ ‘미해결의 장’ 같은

이런 작품들에 등장하는
‘공휴일’ 이나 또 ‘유실몽’ 같은

이런 작품들에 등장하는
손창섭의 세계는

패배의 군상 또 소극적인

반항의 인간본

이런 주인공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불신과 회의에 집착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향상의 의지를 가지고

좋은 면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읽는 사람도 희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데

이런 무기력, 절망, 증오, 불신, 열등감

이렇게 점철된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들도 외롭고

불행해 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것이 손창섭 개인의

체험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 당대의 시대상이

그랬다는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침체되고

자기 비하적인 소설 세계 속에서

우리는 손창섭과 더불어

전후 시대적 상황을

매우 밀접하게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의 직업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인간군을 나뉘보면 주로
실업자, 또 무능력자

아니면 병자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경제가 어렵던 때에

또 생존경쟁이 치열하던
그와 같은 때에

이럴테면 손창섭 소설은
사회의 올곧은 구성원이 되지도 못하고

인간관계에서도 고립되고
격리되어 있는

그런 비극적 삶의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창섭인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주저앉아서

그와 같은 소설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또 그리고 싶었겠냐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환경이 인간을 지배할 때

또 작가를 지배할 때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손창섭이 언제까지나

그와 같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진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지면서

손창섭은 점차

밝은 세계를 지향하게 되는데

밝은 세계를 지향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사회상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었다는

전후 사회가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손창섭 자신도
일본인 친구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고

삶에 안정이 되면서 그 작품세계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특히 역사 소설을 쓰면서

손창섭이 보다 밝은 세계,
보다 밝은 이야기 속으로

이동해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개구리를 바라볼 때

그것이 푸른색 잎사귀 위에
앉아있을 때

청개구리가 청개구리답다는 거죠.

그 잎사귀에서 한 발 내디뎌서
땅으로 내려섰을 때

청개구리는 대개 보색 때문에
피부색이 변하죠.

흑색으로 바뀐 청개구리는

청개구리 같지 않죠.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패배와

반항의 군상을 그리고 있을 때의

손창섭은 전후의 시대적 상황을

작품에 긴밀하게 밀도 있게 반영했으나

역사소설로 그리고

보다 밝은 세계를 향해서

걸어 나가게 되었을 때의

손창섭 소설은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긴밀한 압축미, 밀도

이런 것을 상당 부분

유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비단 한 작가의 한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국면에서도

똑같은 것이 아닐까.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그 뒤에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손창섭이란 작가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창섭의 소설 가운데

‘소년’ ‘잉여 인간’ ‘낙서족’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들은 대체로

밝은 세계를 향해서

걸어 나가는 작품들

그다음에 특히 ‘잉여 인간’ 이란 작품은

여기에는 '서만기'라는

치과의사가 등장하는데

정말 손창섭의 소설이 아니라

누구의 소설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반듯하고 인격적이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의사입니다.

이런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이전의 손창섭 소설에서는

전혀 볼 수 없던 거예요.

손창섭의 작품세계를

바꾸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신의 희작’ 하고

부채를 붙여서

'삼류소설가 S의 경우'

S는 손창섭 자기죠.

이 작품을 쓰고 나서 손창섭은

이 작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폭로하고

자기 자신을 카타르시스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종의 자기 혁명 선언 같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신의 희작'이 바로

그런 것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등장하는 두 남매

그러니까 '동욱'과 '동옥'이라는 남매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동욱은 더 이상
초상화 그리는 일을 할 수 없고

동욱은 몸이 불편한 불구자인데

그러니까 정말 혼자되었을 때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친구
'원구'라는 인물도 모두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동욱은 마치 영화 속의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스운 구두를 신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현실적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이란 제목은
바로 이와 같은 음울한

그리고 부정적이며, 자기비하적이며,
자기 모멸적인 세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창섭의 작품은 가장 격렬하게
전후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비 오는 날’을 통해서
참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만

악의 묘사라는 것
어려움의 묘사라고 하는 것

가난의 묘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왜 필요한 것일까요?

악의 묘사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의 극복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소설의 형식들이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

한국의 문학이 1950년대
손창섭의 이와 같은 전후문학을

넘지 않고 서는
그 이후의 시대로

나아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바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의 중심에

손창섭, 장용학, 이호철

오상현, 선호이 같은

전후문학 작품의 작가들이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